

# “항암치료 제때 못받을까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 전남대·조선대병원 가보니

진료 제한·연기에 환자들 피로감  
입원환자 ‘일방적 퇴원 통보’ 불안  
정부·의사 강대강 대치 불만 토로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 대란’ 우려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기분이에요. 의료체계가 붕괴돼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요.”

의료공백이 반년 이상 지속되며 지역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에서도 진료가 제한되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잦아 환자들은 피로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찾은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까 초조해했고, 입원 중인 환자들도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퇴원 통보를 받게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보였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정부와 의사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반년 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모(72)씨는 “환자들이 너무 몰려 진료가 오래 걸렸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밀리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공백이 심화하면 앞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른다”며 “현 시점에서 크게 아프거나 다치면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죽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중환자와 응급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지인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찾은 이모(42)씨도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로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적절한 타협없이 각자의 입장만 관철하는 양측 모두에게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더라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찾은 동구 조선대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전국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해 1층 원무과 앞 로비에는 노조의 농성장이 들어섰고 병원 곳곳에는 총파업 안내문이 내걸렸다. 환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파업 안내문을 살펴봤다.

병원 내부는 농성하는 의료인들과 병원을 찾은 시민들로 온통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의사에 이어 간호사 등 일선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파업에 환자들은 불안감을 내비쳤다.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은 연신 한숨을 내쉬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유방암 투병을 하고 있다고 밝힌 채모(63)씨는 “거주지인 장흥의 병원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고 대형 병원인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갔다”며 “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당장 암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이 없어 입원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광주 기독교병원을 찾아 갔는데 거기서는 방사선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수차례 장흥과 광주를 오가며 당장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가 조선대학교 병원에 왔다”며 “암과 같은 중증환자들은 의료공백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다. 상황이 악화되거나 장기화되면 제때 치료를 못받게 될까봐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다.

심방세동과 호흡기 질환을 앓아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정준호(71)씨도 “의정갈 등 장기화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 등으로 의료현장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면 의료인의 파업은 어떤 경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의료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을 지키면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것이 옳다. 의사고 간호사고 모두 병원을 떠나면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고 호소했다.

일부 시민들은 의료공백과 함께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네 병원의 휴무로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 응급실 대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강선미(18)양은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같아 불안이 크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는 셈”이라며 “언제까지 시민들이 불안에 시달려야 하나”며 불만을 드러냈다. 강양은 “동네 병원이 휴진하는 추석 연휴에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일반 진료도 받지 않아 응급실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의료 섰다운데 대비해 정부와 병원 측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윤준명 기자**



지난달 29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로비에서 환자들 진료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전공의, 병원 돌아오게 할 그 무엇도 없다”

### 지역 의대교수 이야기 들어보니

대학병원 전공의 희생으로 운영  
저임금·고노동 감당할 의지 박탈  
서울 일반병원 임금 최대 6배 차  
“미래와 처우 보장 없인 답 없어”

“지금으로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봐야죠. 정확히는 오게 할 그 무엇도 병원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최근 만난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대교수는 전공의의 귀환 가능성에 대해 묻자 고개를 저었다.

A교수는 “원래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전공의들의 희생으

로 운영하는 곳이다. 경험을 늘리게 해준다는 이유로 저임금, 고노동으로 전공의를 고용하니”라면서 “그런데 이런 전공의가 사라져 버리면 병원 가동이 비정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 종합병원 대부분이 수술과 입원이 반토막 났을 거다. 하고 싶어도 인원이 없으니”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이유에 대해 A교수는 “생각해보라. 대학병원에서 받는 금액의 최소 3배를 일반병원에서 받는 데, 굳이 전문의를 따겠다고 대학병원으로 올 이유가 있을까”라면서 “적게 잡아 3배지, 서울 등지의 일반병원으로 옮기면 최대 6배까지도 본다. 별이가 달라지면 생활도 달라진다. 전공의 생활을 감당할 의지가 안 생기길 것”이라고 답했다. ➔

##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홈집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숯,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